



① 뉴질랜드관광청, 반지의 제왕 개봉 20주년 기념행사

뉴질랜드관광청은 영화 '반지의 제왕' 개봉 20주년 기념행사를 뉴질랜드 북섬, 마타마타의 호빗튼 무비 세트장에서 열었다. 호빗튼 세트장은 영화 '반지의 제왕'과 '호빗'의 촬영지로, 영화 개봉 이후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다. 기념행사에서는 영화 팬들이 사우론, 호빗 등 영화 속 등장인물로 분장해 연주하는 등 파티 분위기를 연출했다. 참가자들은 이어 호빗튼 무비 세트장을 함께 둘러보며 가이드의 해설을 듣는 한편, 전통 호빗 저녁과 디저트, 호빗 생맥주와 중간계 와인 등 다양한 먹거리도 함께 즐겼다.



② 강릉 연곡해변에 장애인·고령자용 '무장애 캠핑장' 준공

강원 영동지역에 장애인과 영유아, 고령자 등 이동 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해변 캠핑장이 조성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달 강릉 연곡해변 캠핑장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연곡해변 캠핑장은 2020년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강릉시는 캠핑장 내 솔밭 보행로 포장과 샤워실 등 시설을 완비했으며, 특히 국내 최초로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카라반과 캠핑 데크를 설치하고 축과 음식 안내판 등 무장애 시설을 갖췄다.



③ 세계관광기구 최우수 관광마을에 필리핀 '보호'

필리핀 세부 지역의 작은 마을 '보호'(Bojo)가 세계관광기구(UNWTO)로부터 '최우수 관광마을'에 선정됐다. 세계관광기구는 최근 자연과 문화 자원을 활용해 관광 부문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달성한 32개국 44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선정했다.



④ 아차산 동행숲길 등 '겨울 비대면 안심관광지' 25곳 선정

한국관광공사는 겨울에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겨울시즌 비대면 안심관광지'로 아차산 동행숲길 등 25곳을 선정했다. 안심관광지에는 동검도(강화), 질오목마을(파주), 감추사(동해), 황간역(영동), 용봉산(홍성), 의성양반마을(의성), 전구형왕릉(산청), 공기마을 편백나무숲(완주), 박수기정&대평포구(제주) 등이 포함됐다. 관광공사는 "여행지 방문 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입장이 제한되는 등 변동 여지가 있다"며 "개방 여부·개방 시간·관람 방법 등 세부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⑤ 부산 여행지로 해운대 해변열차, 달맞이길, 감천문화마을 선호

부산관광포털 이용자들은 방문하고 싶은 여행지로 해운대, 감천문화마을 등을 꼽았다. 부산 관광공사는 부산관광포털(비짓부산) 5개 언어권(국문, 영문, 일문, 중간체, 중번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이트 만족도와 부산 여행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부산 여행을 하는 동안 방문하고 싶은 여행지를 묻는 항목에 해운대 해변열차(23.72%), 해운대 달맞이길(15.63%), 감천문화마을(8.09%) 등으로 응답했다. 여행 중 가장 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맛집 먹방(40.42%)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⑥ 잘츠부르크관광청이 추천하는 온천 3곳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관광청은 추운 겨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잘츠부르크지역 온천 3곳을 소개했다. 잘츠부르크에서 가까운 '아쿠아 잘자'는 대표적인 온천이다. 어린이들이 35°C의 따뜻한 전용 풀에서 신나게 물놀이를 하는 동안 어른들은 수영을 즐길 수 있다. 또 고산 온천 스파인 '알펜테르메 바트호프가슈타인'은 360도 고산 파노라마를 즐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가운 바드' 치유 온천은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넓은 휴식 공간을 자랑한다. 지하 1천345m 깊이에서 시작되는 온천수에는 미네랄이 함유돼 근골격계 질환과 류마티즘 치료에 특히 도움이 된다.





01 '롯데호텔 1979' 허브 양갈비 출시

롯데호텔이 자체 프리미엄 밀키트 브랜드를 론칭했다. 브랜드명은 1979년부터 이어온 파인 다이닝의 철학과 노하우를 담아 '롯데호텔 1979'로 정했다. 롯데호텔의 셰프들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첫 상품은 '허브 양갈비'로 롯데쇼핑의 통합 온라인몰 롯데 ON(롯데온)에서 단독 판매한다. 뉴질랜드 청정지역에서 자연 방목으로 자란 어린 양의 갈비살 중 최고급 부위인 프렌치 랙을 7~8대까지 제공한다. 프렌치 랙은 5번부터 12번까지의 가장 귀한 갈비 부위로 부드러운 식감과 풍부한 육즙이 특징이다. 프랑스 프로방스 지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라따뚜이와 더불어 화이트 푸드의 대표주자로 불리는 콜리플라워도 곁들여 다양한 맛과 식감을 즐길 수 있다.

02 글래드 호텔, '크라운 프렌치랙 스테이크' 마켓컬리에 출시

글래드 호텔은 근사한 홈파티를 즐길 수 있는 메뉴를 고민하는 고객들을 위해 글래드 여의도 레스토랑 '그리츠'의 '크라운 프렌치랙 스테이크'를 마켓컬리에 선보인다. 마켓컬리에 새롭게 선보이는 '크라운 프렌치랙 스테이크'는 프렌치랙(680g)과 허브 시즈닝(10g)으로 구성됐다. 특히, 통양갈비를 엮어 왕관 모양으로 조리하는 램 크라운은 근사한 홈파티 메뉴로 사랑받고 있다. 크라운 프렌치랙 스테이크는 양고기 중에서도 고급 부위로 손꼽히는 프렌치랙을 사용해 부드러운 결과 풍성한 육즙을 자랑한다.



03 롯데호텔 프랑스 레드와인 선보여

롯데호텔은 프랑스 와이너리 샤토 앙젤뤼스(Chateau Angelus)의 와인 메이커와 협업한 레드 와인 '에스프리 드 생테밀리옹'(Esprit de Saint-Emilion)을 선보인다. 샤토 앙젤뤼스는 1999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프랑스 남부 생테밀리옹 지역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와이너리 중 하나로 영화 007 시리즈에서 제임스 본드가 즐겨 마신 와인으로 유명하다고 롯데호텔은 설명했다. 서울, 월드, 제주, 울산, 부산 등 국내 5개 롯데호텔에서 동시 판매된다.

04 곤지암리조트에 AI 시설관리 로봇 배치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곤지암리조트는 LG전자의 인공지능 시설관리 로봇을 포함한 AI 시설관리 솔루션을 도입했다.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AI 로봇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등 실내외 공간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각종 시설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응급환자가 있는지도 확인한다.



05 인천~제주 여객선 7년 만에 재취항

7년 넘게 끊긴 인천~제주 뱃길에 비온드 트러스트호가 지난달 취항했다. 비온드 트러스트호는 매주 3회 인천과 제주를 오간다. 인천에서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7시 출발해 이튿날 오전 9시 30분 제주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제주에서는 화·목·토요일 오후 8시 30분에 출발해 다음 날 오전 10시 인천에 도착한다. 편도 기준으로 운항 거리는 274마일(440km)이고 운항 시간은 14시간 안팎이다. 2만7천급 카페리인 비온드 트러스트호는 승객 850명, 승용차 487대, 컨테이너 65개 등을 싣고 최대 25노트(시속 46km 정도)로 운항할 수 있다. 선체 내부에는 90여 개 고급 객실과 레스토랑, 비즈니스 라운지, 섀넌 테라스, 마사지 라운지, 편의점, 키드 존, 펫 존 등 다양한 고객층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됐다. 마루형 이코노미 등급의 평일 요금은 5만4천 원, 주말·공휴일 요금은 5만9천400원이다. 평일 기준으로 2층 침대가 있는 스탠더드와 디럭스의 운임은 각각 6만1천800원~6만5천400원이다. 일반 승용차나 승합차를 실을 경우 22만6천~48만 원을 요금으로 낸다.



06 캐세이퍼시픽항공, 홍콩 입국서류 사전확인제 도입

캐세이퍼시픽항공은 복잡해진 항공편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돕는 '플라이 레디'(Fly Ready) 서비스를 도입했다. 캐세이퍼시픽의 플라이 레디는 홍콩행 항공편 출발 48시간에서 12시간 전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포함한 기타 필수 의료 및 입국 서류를 미리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로, 다른 국가에서 홍콩으로 입국할 시 사용할 수 있다. 캐세이퍼시픽을 이용해 홍콩에 입국하는 승객은 사전에 받은 링크로 개별 접속해 PCR 음성 확인서를 포함한 기타 필수 의료 및 입국 관련 서류를 업로드해야 한다. 이 과정을 완료한 승객은 인천공항에 마련된 캐세이퍼시픽 플라이 레디 전용 카운터(K1카운터)에서 복잡한 서류 확인 과정 없이 빠르게 체크인을 마칠 수 있다. 원본 서류 혹은 디지털 사본을 꼭 소지해 체크인 시 제시해야 한다.